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평가위원회 개최 전북 고창 하전공동체 등 5개 공동체 사업계획 평가



2016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모습. 위원들은 전북 고창 하전공동체 등 5개 공동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지난 12월 16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장묘인 과장을 비롯한 평가위원들은 특별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고창 하전공동체 △전북 부안 치도공동체 △강원 양양 수산공동체 △충남 예산 예산대내수면공동체 △경남 통영 통영연안자망공동체 등 5개 공동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지원제도로, 201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9개소가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회의 2016년 활동실적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12월 22일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보고 및 향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설턴트 활동보고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컨설팅 대상공동체 선정과 관련, 현행 신규공동체 위주에서 공동체 평가점수가 낮은 활동부

한국수산회는 지난 12월 22일 KTX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위원(12명) 및 전문분야 컨설턴트(4명)를 포함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컨

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컨설턴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올해 18개 신규공동체 대상 활성화 교육 실시 우수공동체 벤치마킹 통해 성공적인 정착 유도



12월 21일 경기 북파주내수면공동체 회원들이 충남 예산군 당내수면공동체를 방문해 천명길 컨설턴트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12월 6일 경남 통영 능양마을회관에서 공동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화성 백미리공동체 이창미 사무장 등이 교육하고 있는 모습.

데 화성 백미리공동체에서 첫 교육을 실시한 이래 12월에 3개소(경남 통영 능양, 매물도 대항공동체, 경기 북파주내수면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해 총 18개소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다. 지난 11월에는 경남 남해군의 강진만 연안통발공동체 및 유포공동체, 경남 창원 진동복합어업공동체, 충남 보령시의 학성선주협회 및 고잠공동체 등 5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18개 신규 자율관리공동체가 활성화 교육을 받았다. 신규 공동체 활성화 교육은 우수공동체를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신규 공동체에 대한 활성화 교육은 자율관리어업에 처음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공동체 활성화교육은 지난 8월 24~25일 태안군 신야2리, 장곡4리 공동체 어업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편 한국수산회는 향후에도 현장 위주의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3.0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일을 놓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2016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올해 분쟁과제 추진실적 및 내년도 운영방안 협의



12월 1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회의 모습.

한국수산회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 회의실에서 자율조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규)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열린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16년 신규

안전 4건과 '15년 미해결된 이월과제 4건 등 총 8건의 분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및 향후 자율

조정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올해 조정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과제는 △전남 완도약산 화가넙고천동어촌계간 매생이양식조업분쟁 △경남 고성 정치망어업협회와 연안들망어업협회간 조업분쟁 △전남 완도 대야1리와 대야2리어촌계간 지선경

계선 분쟁 △경남 남해 대벽공동체 및 가인어촌계와 사천 삼천포잠수기어업 공동체간 조업구역 분쟁 등 4건이다. 12월 현재 마무리되지 못한 분쟁과제는 내년 초순까지 계속 조정을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총 65건의 신규 분쟁과제를 발굴, 이 중 45건을 조정 완료(예정)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

■ 전남 완도 약산 화가넙고천동어촌계간 매생이양식지 조업분쟁 해소

오랫동안 유휴지로 방치되었던 3개 마을의 갯벌 간석지가 새로운 소득품종인 지주식 매생이 양식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이에 한국수산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 조정을 벌인 결과 새로운 어촌계간 관할수역경계선(지선경계선)을 확정하는데 합의안을 마련, 자율조정합의서에 분쟁당사자들이 서명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했다.

■ 경남 고성 정치망어업협회와 연안들망어업협회간 조업분쟁 해소

분쟁당사자인 두 업종이 쌍방간 불법조업 및 어구설치 금지, 야간조업 시 집어등 사용 제한, 조업 보호구역 표시설치 등에 이견을 보여 장기간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분쟁조정위원들이 수차례의 조정 끝에 최근 조업부진 및 어선감축 등으로 분쟁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간 어업행위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했다.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공동체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과 연계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해남권역 어촌지도자 대상 교육 임여호 전남동부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전남동부담당 임여호 컨설턴트는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에서 해남권역 어촌지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 및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화 품종 개발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11월 22일에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산권역 어촌지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12월 6일에는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고성권역 어촌지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여호 컨설턴트가 11월 3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에서 해남권역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제주지역 자율관리공동체 순회 교육 최영진 제주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제주담당 최영진 컨설턴트는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온평리공동체 사무실에서 온평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역순회 교육'에 참여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최영진 컨설턴트가 11월 24일 제주 온평리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순회 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

인천에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교육 천명길 인천·경기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인천·경기담당 천명길 컨설턴트는 지난 11월 7일 인천 옹진군 승봉리 마을회관에서 승봉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수산사무소가 주관하는 '2016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교육'에 참여하여 자율관리어업 정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또 11월 8일 경기 안산 흥성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했다.



천명길 컨설턴트가 11월 7일 인천 승봉공동체에서 인천수산사무소가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로 참여해 강의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관내 공동체 위원장 대상 교육 김동철 전남중부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전남중부담당 김동철 컨설턴트는 지난 12월 1일 경기도 남부수협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및 관계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또 11월 2일 경남 남해 강진만연안통발공동체 및 유포공동체 관계자 등 70여명 대상으로, 11월 11일 경남 창원 진동복합공동체 및 관계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수산회가 주관하는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에 강사로 참여했다.



김동철 컨설턴트가 12월 1일 경기도 남부수협에서 경기도 관내 자율관리 공동체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



11월 11일 경남 창원 진동공동체에서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하반기 자율관리어업 평가담당자 교육 실시

관리규정 개정내용 및 제도개편 연구내용 설명



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대전에서 자율관리어업 평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20일 대전 아드리아호텔 회의실에서 지자체, 한국수산회, 수협,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평가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자율관리어업

역'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전자평가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은 2017년 정책방향 수립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6.2.19.)' 개정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자율관리어업 재편 연구용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거제에서 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개최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대상 수상



올해 어촌마을 전진대회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500여명의 어업인들이 참석했다.

올해 한해 어촌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가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 까지 이틀간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어촌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해설사, 사무장 등 개인 시상과 어촌체험마을 및 우수 어촌특화역량강화마을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한표 국회의원, 신우철 완

도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격려했다.

올해 대회에서 어촌체험마을 우수그룹 대상은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이, 발전가능그룹 금상은 강원 양양수산 어촌체험마을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우수 사무장에는 화성 백미리어촌체험마을 이창미 사무장이, 바다해설사는 인천의 빈남옥씨가 각각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주요내용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 개선... 공동체 내실화에 주력



12월 20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자율관리어업 평가담당자 교육에서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사무관이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대전 아드리아호텔 회의실에서 지자체, 한국수산회, 수협,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평가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자율관리어업 평가담당자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수정 사무관이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을 설명한데 이어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정진호 박사가 '자율관리어업 재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오선인포 관계자로 부터 '전자평가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자원관리 정책 중 하나이다. 참여 공동체는 출범당시 63개소에서 1,129개소로 늘어났고, 자율관리 참여자 수도 5,107명에서 7만여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 공동체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자발적인 어장관리 및 자원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법보다 엄격한 자체규약을 통해 어획강도를 낮추는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생산량을 규제하는 공동체는 34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어선감축 등 어획량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공동체는 17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또 조업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공동체는 385개소, 체포체장을 확대해 자원

보호 노력을 기울이는 공동체도 46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 평가점수가 500점 미만으로 활동실적이 부진한 공동체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에는 최근 2년간 연속해서 평가점수를 500점 이하로 받을 경우 공동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들 공동체에 대한 질적성장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규정 개정 주요내용

2016년 2월에 개정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에는 첫째, 지방해양수산청 업무신설(제7조 제4호) 조항이 마련돼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이 지방해양수산청 사무에 추가(15.1.6)되었지만 그동안 후속조치가 없어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감독 및 육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후관리업무 신설'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자율관리어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번째는 자율관리 공동체의 구성단위 및 구성원의 범위조정(제13조 및 제14조)이다. 그동안 마을어업 유형을 '어촌계소유 간석지 패류양식'으로 표현하고, 그 구성원 범위를 '어촌계원 또는 살포식 어업을 위한 패류양식 어

업면허를 받은 자로 표현하여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마을어업 유형을 '마을어업관련 어촌계 또는 수산업법 제8조1항2~5호에 따른 양식어업 중 바닥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 중심'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했다.

셋째는 공동체의 선정취소 사유를 강화(제17조)했다. 그동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동체가 있어도 취소 사례가 없는 등 공동체 관리에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최근 2년간 수산관련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공동체, 육성사업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최근 2년간 연속해서 평가점수 500점 미만으로 활동실적이 미흡한 공동체는 공동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우수공동체 지정패 수여 및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패 수여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500점 미만 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실적 저하 원인을 전수조사하여 원인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규정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축소 재편해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법 국회 통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대폭 강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선원의 조업환경 개선과 함께 어선의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 법률 개정안'과 '선원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14건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과 그 골자를 소개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개정)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

을 몰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원법(개정)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사노동협약(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원의 근로와 생활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유기구제보험 제도 도입,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범위 확대, 선원의 직접청구권 보장, 보험계약 중도해지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선원에 대한 재정 보증시스템이 강화돼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어선법(개정)

어선 거래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어선 거래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어선 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성실한 중개 시 중개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정)

그동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분야)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수산분야) 등 두 개의 법에서 각기 따로 규정하고 있던 해양과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해 체계적인 연구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분야 신기술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신기술에 대한 인증 표시 및 홍보

사업화 지원 등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 해수욕장법(개정)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해수욕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된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였고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 강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 해양환경관리법(개정)

연구·학술·정책수립 목적의 방사성 물질 해양유입 조사를 해양수산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법' 적용을 제외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물에 따라 배출토록 했다.

국회 김도읍 의원실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 정책 토론회 개최

연근해 어획량 30년새 60% 급감 ... “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11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협중앙회가 주최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여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이 최근 30년 사이 6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월 28일 국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자원고갈에 대응하려면 정부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06만톤으로 관

련 통계 작성(1970년 이후) 이래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1986년 약173만톤과 대비해 약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어업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을 들어 원인을 분석했다.

김 회장은 “바다라는 공유지가 가진 어자원처럼 공동체 모두가 이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과 개인에게 맡겨두면 남용하고 결국 고갈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정한 합의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만 고갈 위험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종합토론 모습.

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이 스스로 휴어기, 금어기 등을 설정해서 어획강도를 줄이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자율적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연구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

론을 진행했다.

이상고 교수와 이창수 연구원은 각각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과 '수협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부경대 김병호 교수, KMI 이정삼 어업자원 연구실장, 한구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수산자원 자율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어업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해수부, 2017년 바다숲 3,038ha, 바다목장 5개소 신규 조성 추진



해중림초를 설치해 복원된 바다숲 모습.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 바다숲 3,038ha와 바다목장 5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이란 갯녹음(바다

사막화)이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 이식, 자연석 또는 해중림초 설치, 천연 해조장 관리 강화, 자연 임반 개선 등을 실시하여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바다숲 5만4,000ha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에 걸쳐 총 1만2,208ha를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조성 가능성 여부를 사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8일 정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한 '2017년 바다숲 대상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갯녹음화 정도, 암반 분포, 오염원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지역별로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적합

한 바다숲 조성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숲 사업과 함께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인공적으로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청정 해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입해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바다목장 26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5개소를 12월 말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명태 완전양식 기술 과학기술 10대 뉴스 선정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 개발 성공이 올해 과학기술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사진은 수조에서 양식중인 활명태.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 명태 완전양식기술 개발 성공'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발표하는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 시에는 국민투표, 전문가 선정위원회 등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건의 연구성과와 4건의 큰 사건(이슈)이 뽑혔다.

이 중 연구 성과 부문에서는 미래의 식량부족 문제 해결 등 인류가 당면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주목을 받았다.

명태 완전양식기술 개발은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서 다시 동해 바다 명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큰 관심을 받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물로 자연산 명태의 수정란으로부터 인공 1세대를 얻은 후, 적정 수온과 사료를 제공해 조기에 어미화를 유도하고 인공 1세대가 낳은 알에서 올해 10월 성장한 인공 2세대를 얻어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이밖에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결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사회적 문제가 된 가슴기 살균제 피해 등이 10대 과학기술 뉴스로 선정됐다.

연근해어업 자조금 제도 본격 도입 해수부, '붉은대게갈치' 임의 자조금 설치 승인

양식어업에 이어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도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6일 '붉은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 자조금 설치를 승인해 연근해어업 분야에 대한 품목별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의 자조금은 특정 품목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구성원이 납부하는 임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 자조금 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동안 양식어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품목별로 여러 대표 조직이 구성돼 있으나 연근해어업 분야에

는 품목별 대표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연근해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신규로 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연근해 어업인의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돕기 위해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행정·기술적 맞춤 지원 제도를 운영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해수부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자조금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월 초까지 현재 법인 설립절차를 진행 중인 꽃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3개의 연근해 품목에 대한 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동안 계획 생산이 어렵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생산 지역과 잡는 방식이 달라 조직화가 어려웠던 연근해어업 분야에 최초로 자조금이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해수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업 품목 중 임의 자조금 단체 조직이 가능한 품목을 계속 발굴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수산업 분야에서는 2004년 양식어업 생산자단체가 조직화돼 자조금 등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품목은 김, 광어, 송어, 전복, 자라, 민물장어, 향어, 메기, 미꾸라지, 동자개, 관상어 등 11개다.

남해군수협 전복방류사업 추진



남해군수협(조합장 김창영)은 지난 11월 30일 흥현 어촌계에서 전복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했다. 클로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

산종묘 방류사업에 남해군수협은 1,9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4cm 이상의 전복종묘 2만 8,000마리를 방류했다.

바다의 소중함 일깨우고 생태계 보존 결의 해남군수협, 바다 살리기 실천대회 참가



해남군수협(조합장 김성주)은 해남군민들과 함께 미래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결의했다. 해남군수협은 지난 12월 6일 북

일면 내동항 일원에서 해남군청과 기관단체 인직원, 군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바다 살리기 실천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남군과 (사)전일엔컬스가 공동 주최했다.

“바다 생태계 보호, 어업인 안전 지킨다” ‘어구관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어구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구 생산과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 어구를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반드시 수거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불필요한 어구(漁具)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 ‘어구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구 생산업 등록제와 어구 판매업 신고제를 실시해 어구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 설치 시 소유자 등을 표기하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해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등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했다. 어구 투기 금지와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했고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버려지거나 방치된 어구의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구관리법’을 마련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연근해에 버려지는 어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물고기가 걸려 죽

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유령어업 피해액은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획 생산액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 사고 206건 중 버려진 어망, 밧줄 등 어구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192건(93.5%)에 달해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의 생활공간인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수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안착’ 2016년 수산직불금 대상어업인 중 95% 신청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 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수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을 마감한 결과 신청한 어업인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직불금 대상 1만 8,860개 어가 중 1만 7,917개 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9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청어가 수 1만 4,924개 어가보다 2,993개 어가가 늘어난 것

이다. 신청률도 2015년 80% 수준보다 15%p 상승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 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

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신청률이 저조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률이 급격히 증가해 올해에는 90%를 훌쩍 넘는 안정된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는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년까지 어가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2016년 수산물 수출 유공자 포상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수산물 수출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수산물 수출 공로탑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장관표창 및 수출공로탑 수여식’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11월말 기준 19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증가했으며 2015년 연간 수산물 수출액 19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자치단체,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유공자 10명을 선정해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업체별 수출액 규모에 따라 47개사에 수출공로탑을 수여했다.

수출공로탑을 받은 기업은 1억 5,000만 달러 1개사(동원산업/참치), 3,000만 달러 2개사(삼해상사/김, 에스앤비인터내셔널/참치), 1,000만 달러 9개사, 500만 달러 10개사, 300만 달러 12개사, 100만 달러 13개사 등이다.

후포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수협중앙회 후포어업정보통신국은 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의식 제고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생활

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월 7일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일원에서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어업인 및 수산분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구명조끼 상

시착용 홍보 및 어업인 심폐소생술 체험, VHF-DSC 무전기 상시 가동을 위한 V-ON운동 등을 전개했다.

수협, 4분기 ‘새어업인像’ 시상식



12월 20일 열린 금년도 4분기 새어업인상 시상식 모습.

수협중앙회는 12월 20일 10층 회의실에서 2016년 4분기 ‘새어업인像’ 시상식을 열고 ‘새어업인像’으로 선정된 어촌 지도자들에게 표창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수협은 이번 새어업인像에 김재선 서산수협 정산포 어촌계장, 김형은 서천군수협

비상임감사, 정상석 영광군수협 조합원, 김영건 사랑수협 수우도 어촌계장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시상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어업소득증대 △북지어촌사회회건설 △어업인 주도의 자율관리 어업 △협동운동 적극 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유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협, 창립 54년만에 은행 분리 '어민 지원 2배 확대' 선언

12월 1일 新수협 출범식 ... 수산물유통 혁신과 어민지원 확대 등 기대



수협중앙회는 12월 1일 독도홀에서 신수협 출범식을 갖고 미래비전을 공표했다.



법인 한국수산업회
KOREA FISHERIES ASSOCIATION

특히 분리된 은행의 자본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려 어민과 수산업 지원에 쓰일 재원을 빠른 시일 내 연간 2천억원 이상 규모로

'신수협' 출범식 식전행사로 열린 수협은행 현판식 모습.

수협중앙회가 12월 1일 창립 54년 만에 수협은행을 독립시켜 해양수산 금융 대표 은행으로 육성하고 중앙회는 어민 지원과 수산물 판매유통수출 조직으로 전문화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 내 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선언했다.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협은 이날 본부청사 독도홀에서 '新수협 출범식'을 열고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을 공표했다. 이날 신수협 출범기념식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사업구조개

편을 적극 지원한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예금보험공사 광범국 사장 및 전국 수협조합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범식에 앞서 김영석 장관과 김임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독립 출범하는 수협은행 현판식을 열어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알렸다.

1962년 창립한 수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어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은행 사업, 유통 및 판매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협동조합도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업구조개편으로 조직 체계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판매유통중심 기능과 은행사업으로 조직을 이원화한다.

은행을 분리한 후 어민 지원 및 유통, 판매, 수출 관련 기능으로 전문화하는 수협중앙회는 지도사업을 통한 어업인교육 지원규모를 현재 연간 460억여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1000억원대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각지 어촌에는 어획물을 대량 수집해 위생가공 처리한 후 도시 지역으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현재 3개소에서 20개소까지 확대 구축되고, 기존 낡은 시설을 위생과 식품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한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도 50개소가 신설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인구 밀집 권역에는 산지에서 집하된 수산물을 분류하는 소비자분산물류센터가 5곳 신설된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9천억원 규모의 경제사업 매출규모를 2021년까지 1조 5천억원 규모로 키워 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 집중된 해외수출전략도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현지 수출지원센터를 만들어 다변화함으로써 수출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현재 700억원대 수준의 세전당기순이익을 오는 2021년까지 1,700억원대로 끌어올려 자산규모 35조의 우량 중견은행으로 발전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세전당기순이익 1,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오는 '19년에는 1,5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수산업회, 201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K-FISH 레시피 영상' 최우수 홍보영상물 수상



한국수산업회의 K-FISH 레시피 영상물이 201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최우수 홍보영상물로 선정됐다. 사진은 홍보영상물 장면.

한국수산업회는 지난 12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K-FISH 레시피 영상'이 최우수 홍보영상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

원하는 국내 유일한 행사이다. 한국수산업회가 출품해 '2016년 최우수 홍보영상물 대상'에 선정된 'K-FISH 레시피 영상'은 중국 아이치이(iqiyi.com)에 송출되는 웹미

디어 전용 콘텐츠로 한류스타 윤시윤 씨가 출연한 10편짜리 시리즈 영상물이다. 심사위원단은 구성과 영상미가 뛰어나고, 특히 K-FISH 수산물을 중국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 만들어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산물 우수성을 잘 표현했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한·중일 민간어업협력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한국수산업회 주관, 어장환경개선 발전방안 모색



한국수산업회는 올해 민간어업협력 및 어장환경개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12월 1~2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2016년 한·중일 민간어업협력 발전방안 워크숍이 지난 12월 1~2일 이틀간 대전시 유성구 호텔아리아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업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한·일, 한·중 민간어업협력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시도, 수협, 일선 선주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한·일, 한·중 민간어업협력 및 어장환

경개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한·일, 한·중 협정수역에서의 어장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총 714톤의 침적 폐어구

를 수거, 전년대비(544톤) 31% 증가했다. 어장환경개선에 참여한 어선척수는 78척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척이 줄었으나 양호한 수거실적을 올렸다.

특히 1인당 수거량은 2007년 361kg에서 2013년 713kg, 2016년에는 1,056kg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어장관리와 함께 휴어기 어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 수산물브랜드대전 대상에 전복장 '해미애찬' 선정



올해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는 해서물산의 전복장인 '해미애찬'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산물브랜드대전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는 내빈들 모습.

장 '해미애찬'이 차지해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금상은 바다원의 멸치·새우스낵 '매일충전에너지바', 은상에는 부경대학교 어간장연구소의 어간장 '어박사', 동

상에는 에스엠생명공학(주)의 간장계장 '생생(간장계장), 어업회사법인 (주)씨스타의 해조류상품 '해피해', 어업회사법인 명품김(주)의 김스낵 '마로칩43'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명품 수산가공식품은 12월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창조경제박람회'에 전시됐다. 또 국내산 수산물전문 인터넷시장인 피쉬세일, 수협쇼핑 특별기획전 등을 통해 홍보·판매될 계획이다.

2016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해서물산의 전복장인 '해미애찬'이 대상을 수상했다.

'수산물브랜드대전'은 2009년부터 품질과 상품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수산가공식품을 발굴,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수산회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11월 4일까지 26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45개 수산물브랜드가 참여해 대상은 전복

해수부, 12월 어식백세 수산물 '방어·붉은대게' 선정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대표생선 방어와 겨울철 별미 붉은대게를 12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 발표했다.

방어는 경골어류 농어목 전갱이과에 속하는 온대성 어류로 몸은 긴 네모뿔 형이다. 몸의 등 쪽은 청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이며, 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 세로로 열은 황색 띠가 그어져 있다. 방어는 다른 생선에 비

해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지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디(D)와 나이아신인 특히 많다. 무기질 중에는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등이 함유되어 있다. 디에이치에이(DHA)와 이피에이(EPA), 타우린 등이 특히 많아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혈전, 뇌졸중 등 순환기계 질환의 예방에 좋다.

붉은대게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발육기 어린이에게 아주 훌륭한 식품이다. 특히, 지방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소화도 잘되어 회복기 환자에게도 매우 좋다. 또한, 알코올의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술안주로도 좋으며 내장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껍질에는 키틴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지방축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방어, 붉은대게는 12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도시·어촌 행복나눔 앞장 '도시어촌교류상' 선정 지속적인 교류활동 나선 '한화케미칼(주) 여수' 대통령상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2월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올해 도시와 어촌 교류 활성화에 앞장선 '도시어촌 교류상' 수상자의 주인공이 결정됐다.

수협중앙회는 범국민적 어촌사랑 분위기 확산 및 도시와 어촌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매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기업·단체 등 일꾼들을 발굴하여 표상하고 있다.

대통령상은 '한화케미칼(주) 여수'가 수상했고, 문전호 고온리어촌계장이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한화케미칼(주) 여수는 2004년 초도어촌계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10개 어촌계와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경기남부수협 고온리어촌계는 마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능기부 결연체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매향향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업(단체), 어촌계부문 해양수산부 표창은 한국예탁결제원, 안진회계법인, 인천도시공사, 웅진수협 종합어촌계가 선정됐고, 속초시수협 장사어촌계는 수협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고등어요리 전문점 등장 ... 대형선망수협 부산서 1호점 개점



12월 1일 부산 사직동에서 문을 연 고등어요리전문점 '한 어부의 고등어 사랑'에서 직원이 고등어 화덕구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의 80%가량을 잡는 어민단체이다.

이 식당의 주된 요리는 고등어 회, 고등어 화덕구이, 고등어찜이다. 짧은층을 겨냥해 비린내 제거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고등어 크로켓, 고등어 어묵 등 다양한 가공

'국민 생선' 고등어 요리 전문식당이 부산에 처음으로 생겼다.

대형선망수협은 12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사직야구장 인근 자이언츠파크에 마련한 270㎡ 규모의 고등어요리 전문점 '고등어 사랑' 1호점 개점식을 했다. 대형선망수협은 국내산 고등어

식품을 함께 판매한다. 대형선망수협은 갈수록 줄어드는 고등어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려고 전문식당을 열었다.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송도해수육장, 해운대 등지로 매장을 늘리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순회교육 실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11월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온평리공동체 사무실에서 온평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방안(강사: 제주담당 최영진 컨설턴트) 및 우수공동체 사례발표(강사: 울산 주전공동체 강원보 위원장)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원보 울산 주전공동체 위원장의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모습.



최영진 제주담당 컨설턴트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강의 모습.